

HRD 2월의 이슈

- 2024년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10대 사업 소개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상 최초 산업안전 대진단 총력 지원!

HRD 동향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업장
83.7만 개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3만 명 → 12만 명



폴리텍대학 유지취업을
역대 최고
92.7%



12월 고용시장,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
61.7%

Vol.95
February 2024 **02**



2024년 청년일자리 맞춤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 넓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COVER STORY

청년들의 다양한 일경험이
내일을 위한 탄탄한
디딤돌이 되기를 꿈꿉니다.



책의 제목을 클릭하거나, 책의 끝단을 클릭한 채로 넘겨주세요.

HRD 스페셜

- 04 2024년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10대 사업 소개
- 06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HRD 현장

- 09 20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총 481개 기관 1,608개 과정 지정
- 10 현장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고, 청년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 10 청년, 반값 응시료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직무능력은행제로 경력관리 하세요
- 11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바일자격증과 스마트학생증 서비스 연계 업무협약 체결
- 12 이제 ‘플러스자격’을 통해 전기자동차검사 전문가로 인정받자
- 13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 15 폴리텍대학 유지취업률 92.7% ‘역대 최고’
- 15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분야도 명장 선정
- 16 한국산업인력공단, 더 많은 청년에 해외 일경험 기회 제공
- 16 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에서 맞춤형 고용서비스 받는다
- 17 제조업 취업 청년, 올해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 BRIEF

- 18 ’23. 12월 고용동향
- 19 이달의 키워드 & HRD 생생정보

연구 INSIDE

- 20 산업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의 쟁점과 과제
- 20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변화와 학교 직업교육의 대응21
- 21 공공고용서비스와 사회적 파트너
- 21 능력중심 채용 지원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연구

기관 LINK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사업 insight

- 23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무엇인가요?

통 권 제 95 호
발행일 2024년 2월 14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관리국
052-714-8325
구독신청 및 문의 1stlee2@hrdkorea.or.kr

2024년, 청년들이 더 많은 일경험 기회,
더 좋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2024년 1월 1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2024년, 청년들이 더 많은 일경험 기회, 더 좋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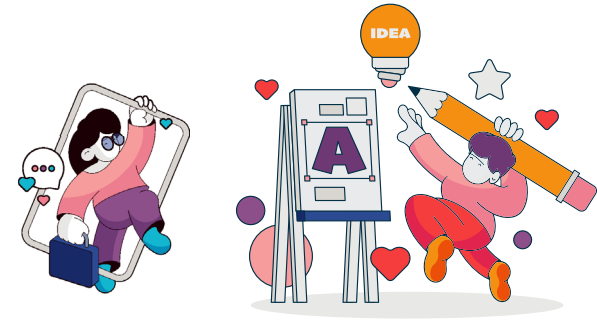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

첫째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작년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확대한다. 동 서비스는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의 설계,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과 취업준비 활동 시 참여수당(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여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 ②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신설된다.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선정하여 인근 직업계고·일반고 등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1만 명에게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로상담과 취업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③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탐방형, 기업ESG 지원형 등을 포함하여 2.6만명에서 4.8만명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권역별 지원센터(6개소)’를 지정하여 지역단위 일경험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하고, 타지역 인턴십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 체류비

(월 20만원)도 신규 지원한다.

- ④ 해외취업을 위한 외국어·직무 등 연수과정과 취업알선, 현지 사후관리 까지 지원하는 ‘K-Move 스쿨’ 사업은 2,100명에서 3,100명으로 확대된다. 올해에는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연수장려금을 신규 지원한다.

셋째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 ⑤ 청년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은 3만 6천명에서 4만 4천명으로 확대된다. 훈련 분야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수요가 높은 산업과 신기술을 융합한 분야 등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지원대상도 재학생, 구직자뿐만 아니라 직무역량 향상을 희망하는 재직 자까지 확대된다.

- ⑥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493개 종목) 시험에 청년들이 응시하면 응시료의 50%를 할인(1인당 연 3회)받을 수 있다.

넷째 구직·취업과정에서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⑦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 사업이 8천명에서 9천명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하면 인센티브(50만원)를 신규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와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⑧ 청년들 누구나 일상 및 구직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시 청년정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10여 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시행한다. 또한, 동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관리자·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입직 초기 청년에게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다섯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⑨ 올해부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새롭게 시행한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⑩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에서 4개월 이상인 청년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대학(원) 졸업 시 취업 하지 못한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수료하거나 대량 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취업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첫째, 더 많은 학생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1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023년 12개 대학 → 2024년 50개 대학

2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024년 신설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인근 직업계고, 비진학 일반고에 학생 지원

둘째,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3 미래내일 일경험

2023년

지원인원: 2.6만명
- 인턴형: 7.7천명
- 프로젝트형: 6천명
- 기업탐방형: 1만명
- 청년친화기업 ESG 지원: 6천명

2024년

지원인원: 4.8만명
- 인턴형: 1.9만명
- 프로젝트형: 6천명
- 기업탐방형: 1.5만명
- ESG지원형: 8천명

4 K-Move 스쿨

2023년

지원인원: 2,100명

2024년

지원인원: 3,100명 + 연수 장려금 신설

셋째,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5 K-디지털 트레이닝

2023년

지원인원: 3.6만명
- 훈련분야: 디지털(AI, 빅데이터 등)
- 훈련대상: 구직자 중심

2024년

지원인원: 4.4만명
- 훈련분야: 디지털(AI, 빅데이터 등) + 첨단산업 + 디지털·첨단산업 융합 분야 + 기타
- 훈련대상: 구직자 + 재직자 및 사업주(사내)

6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 지원

2024년 신설

국가기술자격 493개 종목 응시료 50% 지원 (연 3회 한도)

넷째, 구직·취업과정에서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7 청년도전지원사업

2023년

지원인원: 8천명

2024년

지원인원: 9천명 + 취업 인센티브(50만원)

8 청년성장 프로젝트

2024년 신설

광역 지방자치단체 10개와 협업
- 청년커리어: 심리상담, 자조모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직장적응 지원: CEO, 관리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입직 초기 청년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 제공

다섯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9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24년 신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채용인원: 9만명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실업
- 실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 재입)

2024년

채용인원: 12.5만명
지원요건
- 4개월 이상 실업
- 실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 (대학·대학원 졸업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2024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83.7만개 50인 미만 사업장, 누구든지 참여 가능
- 우리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 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

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안전관리공단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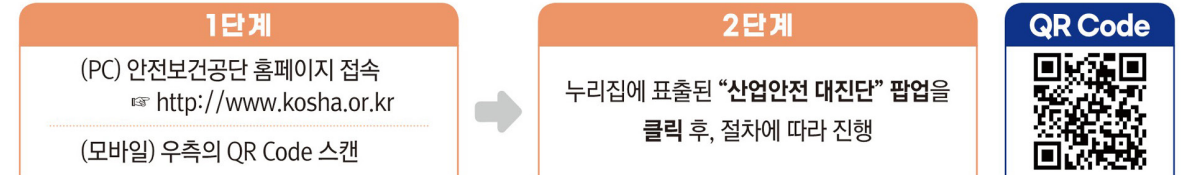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왜 해야하나요?

-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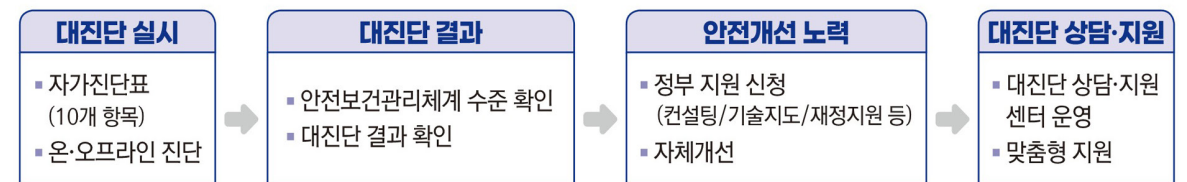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온라인) PC·모바일로 접속하며, 접속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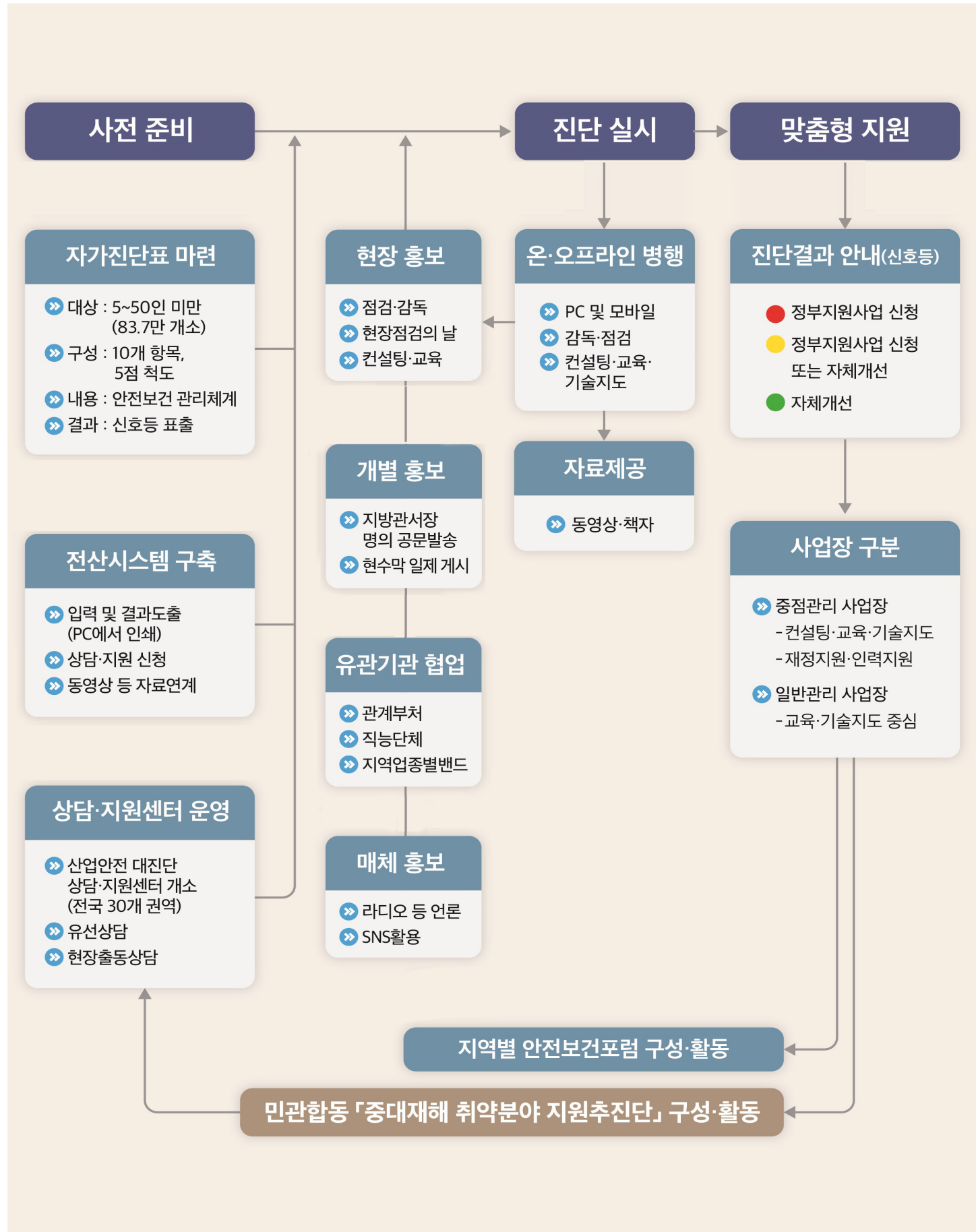
-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진행 되나요?



산업안전 대진단,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첫째,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무 중심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세요!



2024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실무 중심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세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총 481개 기관 1,608개 과정 지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31일, 20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1,608개를 선정하여 공고했다.

● 「2024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공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moel.go.kr),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c.q-net.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 가능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필기시험 중심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현장 실무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실기 위주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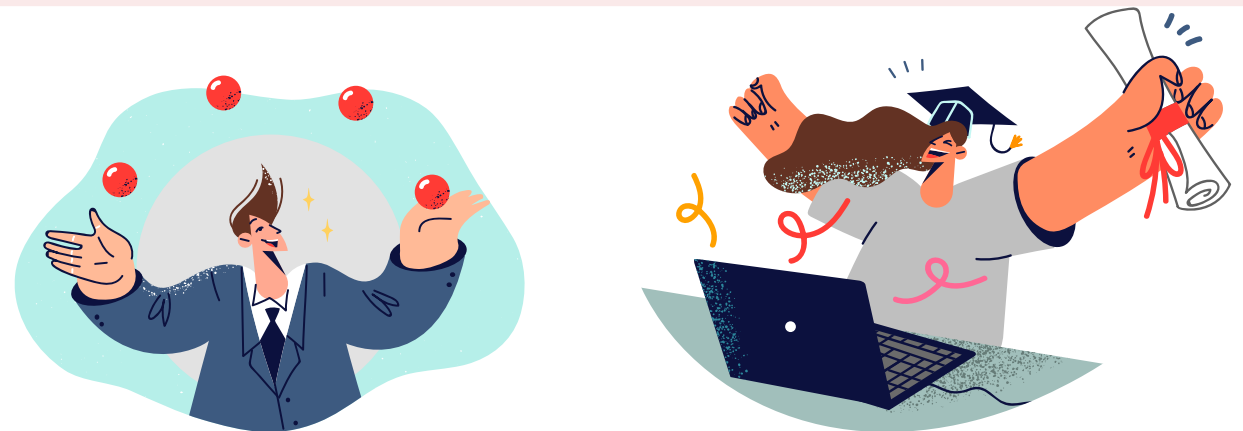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수는 ‘18년 3천명에서 ’23년 1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제 현장에서 실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정형 자격에 비해 취업률이 높고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도 짧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 (’18)3,238 → (’19)4,280 → (’20)6,174 → (’21)8,675 → (’22)9,359 → (’23년)10,125명

● ● ▲(과정평가형) 취업률 43.4%, 현장적응기간 2.2개월, ▲(검정형) 취업률 29.1%, 현장적응기간 3.6개월

올해부터는 설비보전기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등 10개 종목이 새롭게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시행된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지속 확대하여 우수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종목을 신설하고 교·강사 역량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장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고, 청년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2024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현장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고, 청년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7개 K-디지털 플랫폼 및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개최
-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 아이디어 제시 및 솔루션 개발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이 도입되고, 시험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개편되어 편리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 플러스자격(예):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훈련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능력을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

정부는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플러스자격 도입,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의 개편 외에도 다양한 자격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 ①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은 현장의 채용 · 경력관리에 활용되는 직무 단위로 세분화하고 부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자의 자격 취득 부담을 줄인다.
- * 예) 과목별 취득 이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 · 관리하고 부분자격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 완전자격 인정

청년, 반값 응시료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직무능력은행제로 경력관리 하세요



2024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청년, 반값 응시료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직무능력은행제로 경력관리 하세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정식 장관, 수원 디지털시험센터에서 청년들과 정책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 22.(월) 수원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8명)을 만나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과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소개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만 34세 이하 청년 응시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493 종목)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

**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 ② 청년 응시자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 ③ 중장년이 선호하는 분야는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중목을 확대 신설하여 전직을 집중 지원한다.
- ④ 외국인력 확대를 감안하여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되었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직무능력은행제를 통해 자신의 경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등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또한, 필기시험이 컴퓨터 기반의 시험(CBT)으로 변경되어 시험 기회가 확대되고 시험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시험센터(DTC)의 확충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 편리해졌으며, 컴퓨터 기반 시험(CBT) 방식과 디지털시험센터가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자격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응시료 지원 사업과 생애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처럼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바일자격증과 스마트학생증 서비스 연계 업무협약 체결



2024년 1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바일자격증과 스마트학생증 서비스 연계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취득정보와 서울시 특성화고 스마트학생증 모바일 앱 연동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월 15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국가자격시험 운영 및 스마트학생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스마트 학생증 서비스를 연계하여, 기존 모바일자격증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는 2023년 고용노동 분야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

양 기관은 서울시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학생증 모바일

앱에 국가기술자격취득정보를 연동하여 편의성 및 활용성을 높인다. 또한, 숙련기술 및 진로직업 등 공단 사업과 공공교육의 연계 강화를 통해 청년층 취업 및 직업전로 지원 활성화에 기여한다.

업무협약은 △국가자격증 스마트학생증 연동 기능 지원 △초·중·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험시설 지원 △직업계고 학점제와 자격 과정 연계 모델 개발 확대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모바일 국가자격증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가자격사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여 전 국민 역량의 총합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 mobile certificate

Smart student card

주요 협약 내용

- ☑ 직업계고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공단 사업 지원
- ☑ 초·중·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험시설 지원
- ☑ 직업계고 신기술 및 산업분야 등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학점제와 자격 과정 연계 모델 개발 확대
- ☑ 숙련기술체험캠프 등 진로직업의 체험 활성화
- ☑ 국가자격증의 스마트학생증 연동 기능 지원
- ☑ 기타 양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이제 '플러스자격'을 통해 전기자동차검사 전문가로 인정받자



2024년 1월 2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이제 '플러스자격'을 통해 전기자동차검사 전문가로 인정받자**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산업계 협업을 통한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 시범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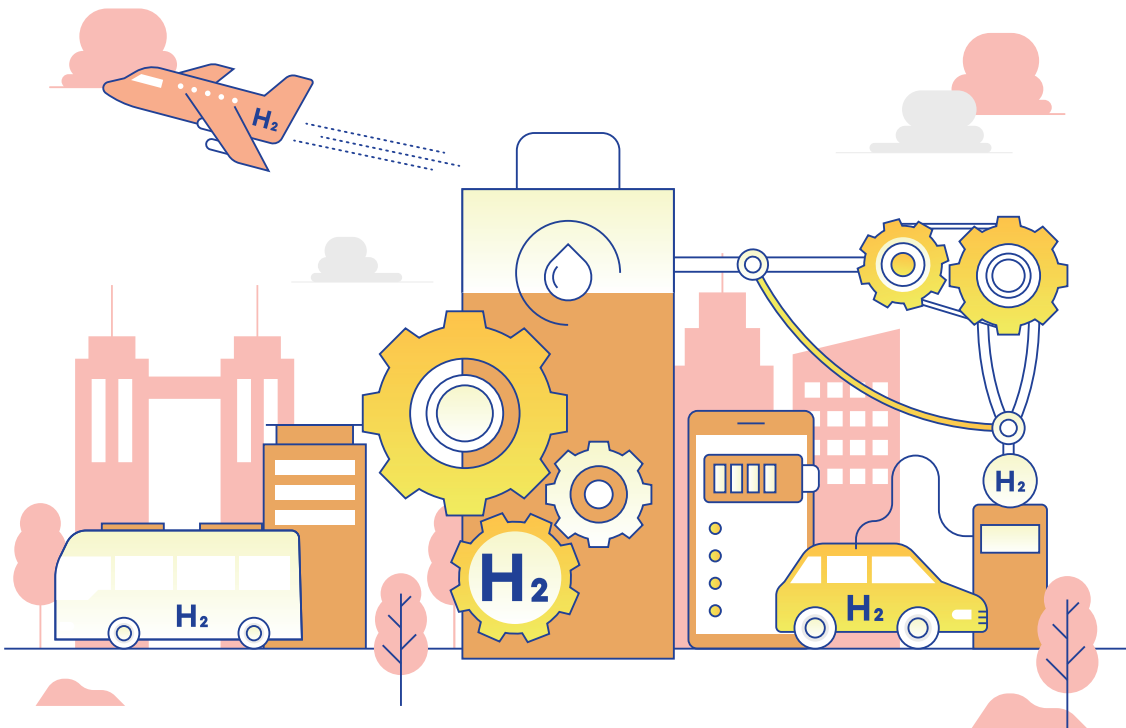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1월 24일(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 1기 훈련과정을 참관하고, 22명의 훈련생을 격려했다. 또한, 훈련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플러스자격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플러스자격은 기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분야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직무 역량을 훈련과정을 통해 습득하고 평가를 거쳐 합격한 경우 기존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 직무 역량을 추가 기재해주는 것이다.

*** '25년 본 제도 시행 목표로 시범 운영 중, 제5차 국가기술자격기본계획('24.1월)에 포함**

이번에 참관한 플러스자격 훈련과정은 자동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서 전기자동차검사 분야의 융합형 자격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으로 직무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훈련 참여자를 모집 · 실시하게 되었다. 플러스자격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22명의 훈련생은 모두 자동차정비기사 ·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고, 전기자동차 정비 관련 법정교육을 이수한 기술 인재이다. 이번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평가를 거쳐 합격하면, 보유 중인 기존 자격증에 '전기자동차검사 직무 플러스자격'이 기재되게 된다.

권태성 국장은 “이번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 시범운영 결과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5년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술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첨단 산업 · 기술 분야에 플러스자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2024년 1월 29일, 한국고용정보원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증가’, 섬유 ‘감소’ - 전자·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유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 주요국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증가하여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전망

- 주요국 인프라 투자 확대로 미국, 유럽, 중동 등 생산설비 확충 및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수출이 2024년 상반기에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도 호조이며 국내 친환경 설비 투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주요국의 통화 긴축기조 유지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작년 대비 커져 수출 증가에 다소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 수출과 내수가 증가하면서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1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조선 :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수요 및 수출 증가로 국내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예상

- 2024년 전 세계 선박 발주 전망은 4,310만 CGT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선업체는 2023년에 가스운반선 등 글로벌 고부가가치 선박의 58.7%를 수주하여 우위를 지속하고 있어 선별 수주를 통한 시장점유율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2023년 1,000만 CGT 내외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 건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선박류 수출액은 약 2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증가 업종에서 증가율로 보면 조선(6.1%), 철강(2.4%), 반도체(2.4%), 기계(2.0%), 자동차(1.9%) 순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1%(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전자 :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중동지역의 불안정성 등으로 전자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와 지저 효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플레이션 지속, 글로벌 무역 분쟁, 코로나19 특수 소멸 등으로 태블릿PC 등 일부 IT 제품 수요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스마트폰 시장은 2023년 낙폭이 축소된 후 2024년에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PC 시장은 AI PC 혼풍, 소비력 회복 등으로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IT제품 수요 증가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4년 상반기에는 2023년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9%(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4> 섬유 :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는 소폭 감소하고 중국 및 베트남 경기 성장세 둔화로 근거리 시장의 섬유 수요가 위축되면서 생산이 감소하여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중국과 베트남의 경기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섬유의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고 상반기에도 세계경기 성장세 둔화로 인한 전세계 섬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섬유소재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단, 고성능 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와 한류 영향에 따른 K-패션 선호 현상으로 국내 섬유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섬유 생산 소폭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1%(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 <5> **철강** : 전방산업 부진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만, 탄소중립 그린스틸 투자 확대 및 인도 등 주요국의 철강 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하여 철강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인도 등 신흥시장의 성장으로 철강수요가 증가하여 수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7.6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용 강재 수요 감소가 철강 수출수요 증가를 상쇄하여 생산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72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현재 85%를 차지하는 화석연료기반 철강 생산에서 탄소중립의 그린스틸 생산으로 전환을 위한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내수부진에도 수출 증가와 투자확대가 예상되어 철강업종 고용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4%(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 <6> **반도체** : 기저효과와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반도체 수출은 2023년(986억 달러) 대비 약 17.6% 증가한 1,16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AI 수요와 메모리 가격 회복을 바탕으로 반도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24년 반도체 설비 투자는 선단 공정 등 필수 전환 위주의 보수적인 투자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설비투자 지속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2023년 하반기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4%(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7> **자동차** : 자동차 업종은 내수 시장 현상 유지와 수출 성장 기조 유지로 생산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엔데믹 이후 완만한 국내 경기 회복과 신규 모델 출시가 내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2024년 상반기 내수 시장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을 기점으로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면서 2023년에는 역대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런 글로벌 수출 성장 기조가 2024년 상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 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 업종은 2023년 하반기에 이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9%(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8> **디스플레이** : LCD 생산 축소에도 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디스플레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 수요 위축 및 가격 하락으로 생산이 축소되지만, 독일 유로 2024, 파리 올림픽 등 글로벌 이벤트로 OLED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LCD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LCD 생산 Capa 축소 및 패널 단가 하락으로 생산이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LCD 생산 축소에도 고부가가치 OLED 제품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2천 명) 감소할 것 예상
- <9> **건설** : 건설비 상승, 건설 투자 감소로 건설 수요가 위축되면서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감소했고 건설 공사비도 상승하여 실질 주주는 감소했으며, 2024년 정부 SOC예산은 2023년 대비 1.4조 원 증가했으나 건설비 상승 영향으로 실질 증가율은 크지 않다.
- 2024년 상반기에도 고금리 유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민간 분양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테리어 시공 등 현장 시공 실적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2024년 상반기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산업 수요와 건설 투자가 감소하지만 인테리어 수요 등 전문직별 공사업 수요가 소폭 증가하여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7%(1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0> **금융 및 보험** : 금리 상승이 유지되면서 수익성은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되어 금융 및 보험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금리 상승으로 높아진 금리가 2024년에도 유지되어 은행업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 상반기에 은행권 가계 대출은 증가하지만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영향이 은행권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상존한다.
-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생명보험 산업은 신규 판매가 감소하고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도 축소되면서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손해보험 산업은 경제규모 증가에 따라 성장세가 이어지지만 경기둔화로 인해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신용카드 산업은 금리 상승, 조달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권 산업은 증권시장이 회복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 및 보험업은 수익성이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전년 동기와 비슷한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2%(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폴리텍대학 유지취업을 92.7% '역대 최고'



2024년 1월 22일, 한국폴리텍대학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폴리텍대학 유지취업을 92.7% ‘역대 최고’**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년 대비 2.3%p 상승, 학위과정 운영 28개 캠퍼스 중 21곳 90.0% 상회
- 4차까지 유지취업을 80.4%, 10명 중 8명은 약 1년 후에도 취업 상태 유지
- 164개 전문·기능대학 취업을 상위 10개교에 7개 캠퍼스 올라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학’) 졸업자 유지취업을 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폴리텍대학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하는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서 1차 유지취업을 92.7%를 기록했다고 1월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90.4%)과 비교해 2.3%p 높아진 수치다. 폴리텍대학의 졸업자 1차 유지 취업률은 2015년 처음 90.0%를 돌파했고, 대학정보공시가 도입된 이래 폴리텍 대학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에 발표한 유지취업률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일정 기간(3·6·9·11개월)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을 말한다. 폴리텍대학 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28개 캠퍼스 가운데 1차 유지취업률이 90.0%를 웃도는 곳은 21개*에 달했다. 졸업생의 2차(6개월), 3차(9개월), 4차(11개월) 유지취업률은 각각 87.9%, 82.3%, 80.4%를 기록해 10명 중 8명은 약 1년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서울정수, 성남, 인천, 남인천, 원주, 대전, 청주, 아산, 광주, 전북, 전남, 익산, 순천, 대구, 구미, 영남융합기술, 창원, 부산, 울산, 바이오, 반도체융합캠퍼스

폴리텍대학은 이 같은 성과에 기업전담제와 소그룹지도제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았다. 기업전담제는 1개 학급(학생 20~30명)당 양질의 기업 20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폴리텍대학은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업과 기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즉시 전력형 인재를 양성해 낸다. 또 교수 1인당 10명의 학생을 소그룹으로 편성해 개인별 경력과 선호 직무 등을 고려해 밀착 지도한다.

한편, 폴리텍대학의 2022년 졸업자 취업률은 80.6%를 기록했다. 전체 164개 전문·기능대학 가운데 상위 10개교에 폴리텍대학 7개 캠퍼스가 이름을 올렸다. 남인천(1위), 영남융합기술(2위), 바이오(4위), 익산(5위), 강릉(6위), 구미(공동 7위), 울산캠퍼스(10위) 등 7곳이다. 폴리텍대학은 올해 3월 중순까지 2년제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분야도 명장 선정

2024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분야도 명장 선정**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숙련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3~’27년) 수립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하여 첨단 기술 보유자도 명장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한편, 산업현장교수 제도*를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 전수사업으로 개편한다.

*** 산업현장교수: 우수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제도로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현장교수가 기술을 전수하고 기업이 전수 성과를 평가하도록 개편**

이번 기본계획에는 우수 숙련기술인 지원제도, 산업현장교수 개편 외에도 숙련 기술 전수 인프라 확충,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숙련기술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① 직업계고 학생,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를 위해 영남권 숙련기술 진흥원을 새로 건립하고, 조선업·자동차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기술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프랑스 리옹, ’24.9월)에 대비하여 해외 전지훈련 확대, 신규 장비 도입을 통해 선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입상선수 명의의 발전지원금 신설도 추진한다.

③ 매년 9월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우수 숙련기술인 포상과 기념행사·정책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숙련기술인의 공로를 치하하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일을 통해 축적되는 숙련기술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을 혁신하는 핵심기반”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현장의 숙련기술 전수를 확대하는 한편,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더 많은 청년에 해외 일경험 기회 제공



2024년 1월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더 많은 청년에 해외 일경험 기회 제공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 500명에 ‘해외 일경험 기회’ 제공할 수 있는 운영기관 모집 - 운영기관에 사업운영비, 청년에 국가별 지원금 및 체재비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024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 (WELL)’ 운영기관을 2024년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

* WELL: Work Experience and Learning Ladder의 약자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과 진로 탐색을 위한 학습(Learning)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 사다리(Ladder) 역할이 목적이다.

공단은 2023년 청년 50명을 선발하여 미국·독일·호주 3개국 37개 기업에서 3~5개월간 사업을 운영하였고, 청년들은 스미소니언 박물관(미국), CSIS*(미국), 인바디(미국)등 유수의 기업에서 일경험을 쌓았다.

* 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24년에는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공모형’과 공단이 직접 국제기구, 비영리법인 등 기업을 발굴하여 운영하는 ‘프로젝트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선발 인원 또한 500명으로 확대된다.

운영기관에는 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며,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월 150만원의 체재비와 최대 300만원의 준비금·수료금(국가별 상이)을 제공한다.

선정 결과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누리집에 게시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역량 있는 운영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에서 맞춤형 고용서비스 받는다



2024년 1월 5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에서 맞춤형 고용서비스 받는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및 운영대학 20개교 모집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40개교 모집(’23년 99개교 → ’24년 120개교)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규 운영대학 38개교 모집(’23년 12개교 → ’24년 50개교)

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지역청년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작년 99개에서 올해 120개 대학으로 늘어난다.(’24.2월 지원만료 19개 대학 포함, 40개소 신규 모집)

* (2023년) 99개 대학, 최대 4.5억원 지원 → (2024년) 120개 대학, 최대 4.2억원 지원

또한,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진로·직업의 탐색과 설계를 제공하고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훈련·일경험 연계 등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도 작년 12개에서 올해 50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 (2023년) 12개 대학, 최대 7.2억원 지원 → (2024년) 50개 대학, 대학 규모에 따라 대학당 4.5억원에서 최대 9.2억원까지 지원할 예정

특히, 올해부터는 고교 재학생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하여 직업계고, 비진학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 전 진로상담·설계 및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까지 지원한다. 신규로 20개 대학을 선정하여 인근 고교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월 5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고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할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모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지난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운영 결과 대학과 학생의 호응이 높아 운영대학을 대폭 늘리고 고교 단계에도 서비스를 신설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인근 고교 재학생들과 지역청년에게 취업지원 거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조업 취업 청년, 올해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2024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제조업 취업 청년, 올해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00만원(3·6개월차에 각 100만원) 지급
- ’24.1.22.(월)부터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2일(월)부터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 ‘24년 예산 499억, 지원인원 청년 24,800명(1년 한시, 신청인원 한도 도달 시 지원종료)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 제출서류 및 접수방식,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대상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 가능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23.10.1.~ 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목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 23.10.1.~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 *취업예로청년 무대(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용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요건	■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 (빈일자리: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제조업은 고용보험 내역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고용24」에서 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필요 ■ 정규직으로 취업후 3개월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지원수준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을 지원함(최대 200만원)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지급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내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자 자동으로 마감됨
신청절차	「고용24」에서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2024.1.22. 개시) 「고용24」→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지정→신청(근로계약서 등 첨부) ※자세한 사항은 「고용24」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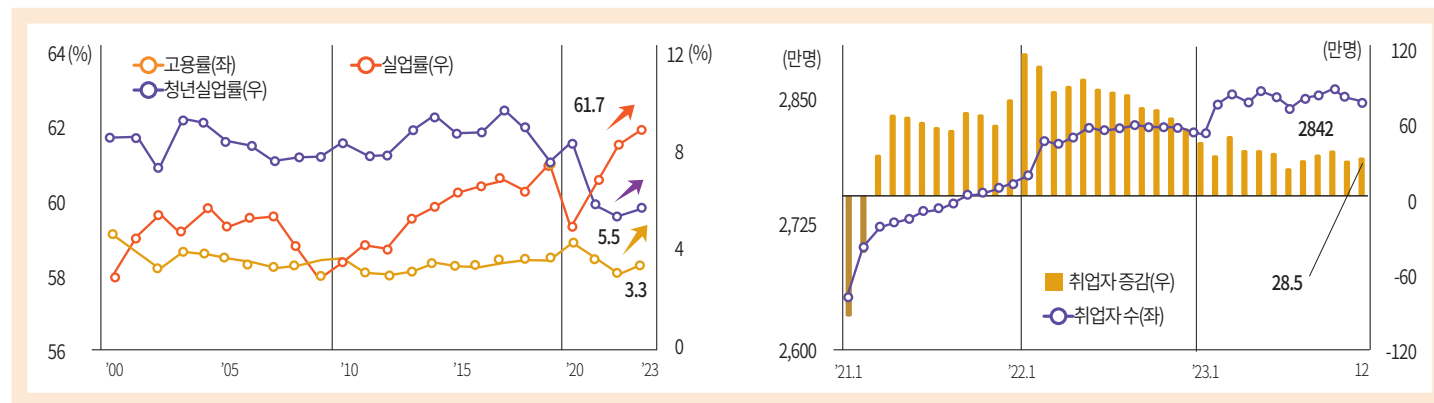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4. 1. 10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2023년 12월 고용동향**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률(61.7%)·경제활동참가율(63.8%)은 12월 역대 최고, 실업률(3.3%)·확장실업률(9.3%)은 12월 역대 최저
 - 경제활동참가율은 34개월 연속 상승(+0.5%p)하며 12월 기준 역대 최고
 - 실업자수는 +7.8만명 증가, 실업률(3.3%)은 상승 전환(+0.3%p)
- 15세 이상 고용률(61.7%, +0.4%p)·15~64세 고용률(69.2%, +0.7%p)은 동반 상승하며 12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
 -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8.5만명 증가(34개월 연속)

⇒ 15세 이상 고용률□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원계열, 매년 12월) + 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원계열, 계절조정, 전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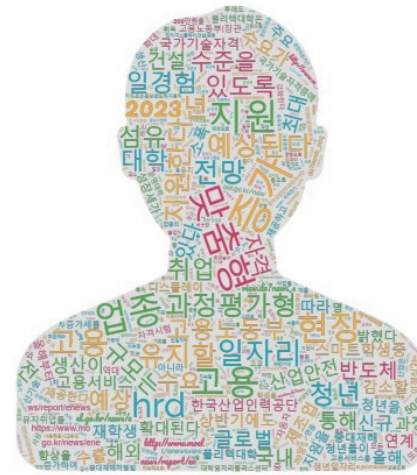
- ☑ 제조업은 수출개선 등으로 증가 전환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정보통신 중심 증가 + 건설업은 증가폭 확대
 - (제조업) 수출개선 등에 힘입어 12개월만에 취업자수 증가 전환
 - (서비스업) 보건복지·정보통신업 중심 취업자수 증가
 - (보건복지업) 돌봄수요 증가 지속 등으로 증가폭 확대
 - (정보통신업) IT 인력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폭 확대
 - (숙박음식업) 방한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폭 확대
 - (건설업) 건설기성 증가, 따뜻한 날씨 등에 따라 증가폭 확대
 - ☑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 + 청년층 고용률 지속 증가
 - (지위)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며, 상용직 비중은 12월 기준 역대 최고
 - 고용원이자영업자는 증가 지속, 고용원無 자영업자는 감소 지속
 - (직업)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등 증가, 단순노무직, 판매종사자, 기능직 등 감소
 - (연령) 고령층 중심 취업자수 증가, 청년 고용률 2개월 연속 상승
 - ☑ 향후 고용률 지속 상승, 취업자수 증가폭 '23년 대비 소폭 둔화 예상
 - '24년 15세 이상 고용률은 62.8%(+0.2%p)로 '23년 대비 소폭 개선, 실업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예상
 - 취업자수 증가폭은 '22~'23년간 높은 증가세에 따른 기저영향 등으로 '23년 대비 둔화 전망(+23만명)
 - (돌봄수요 지속 증가, 여성·고령층 중심 노동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보건복지·공공행정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는 유지 예상
 - (관광수요 회복흐름 등은 긍정적이나, 기저효과 등에 따른 숙박음식업 등의 고용 둔화 가능성, 건설경기 부진전망 등은 제약요인

⇒ 역동경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

- ① 「일자리 전담반(TF)」 중심 고용여건 및 리스크요인 점검
- '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등 논의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신속집행 등 추진계획 점검
- ② 「'24년 경제정책방향」(1.4) 정책과제 이행, 역동경제 환경 조성, 수출·투자 활성화를 통한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이달의 키워드 & HRD 생생정보

- ### ☑ 이달의 키워드(워드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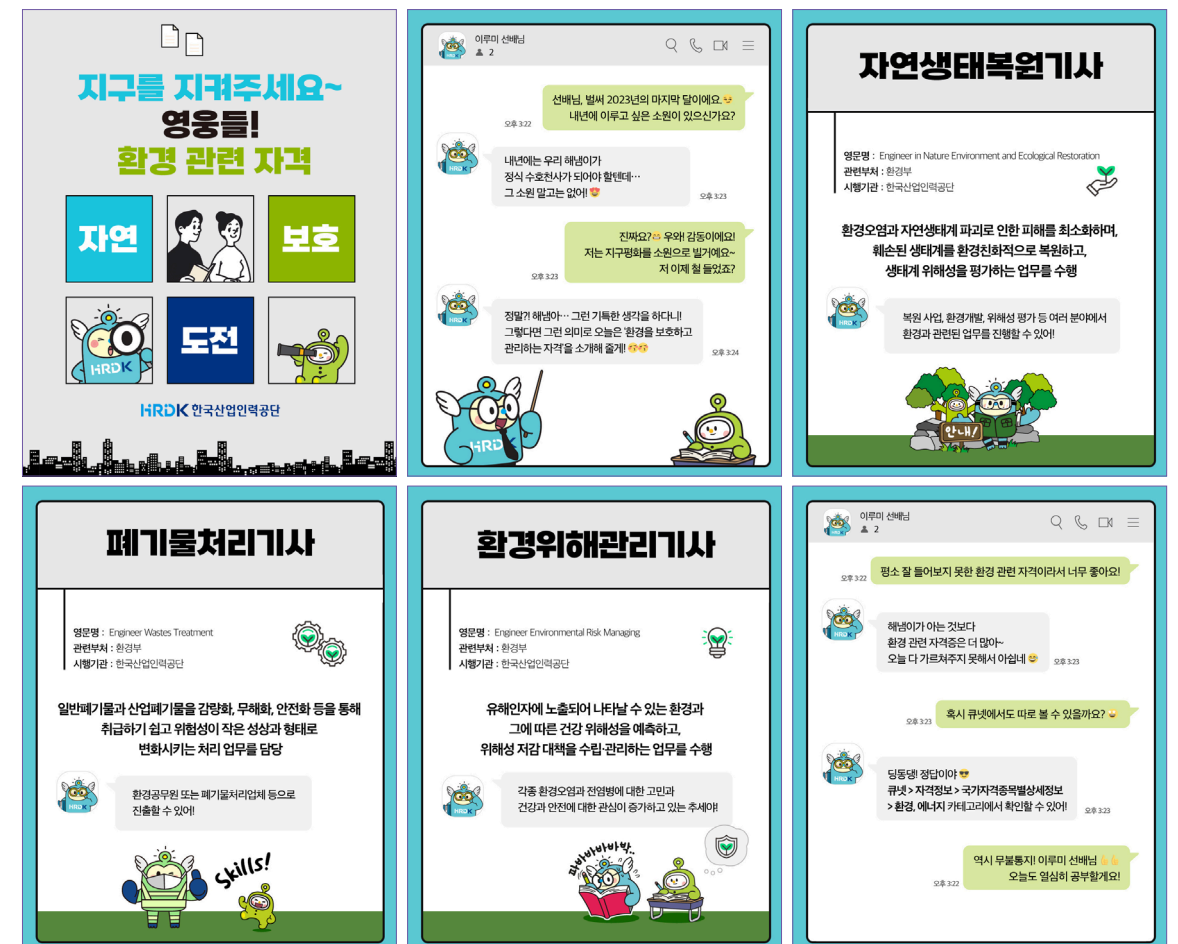
HRD동향 2월호 워드클라우드

-  HRD 생생정보

” 2024년 HRD동향 2월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 1위_ 증가
 - 2위_ 맞춤형
 - 3위_ HRD

'24년 2월호에서는 최근 직종별 업황 및 취업률 등의 지표가 반등 및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청년 및 학생 대상 풍부한 일경험 등 맞춤형 고용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범국민적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의 쟁점과 과제



2023년 11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허영준, 안우진, 이상훈, 박혜진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산업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의 쟁점과 과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국가 인재 양성 정책의 주요 쟁점 도출
- 국가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쟁점별 문제 진단 및 개선 방향 제시
- 새 정부 출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 등에 따른 국가 인재 양성 관련 총서의 발간·보급

✔ 주요목차

- 국가 인재 양성 정책의 변화 과정 분석
- 미래 인재 양성 동향 및 이슈 분석
- 미래 인재 양성의 쟁점 도출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변화와 학교 직업교육의 대응



2023년 11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최동선, 유지은, 이상훈, 오혁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변화와 학교 직업교육의 대응**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직업계고 및 전문대학 관점에서 집중적인 탐구가 필요한 산업·기술분야를 선정
- 해당 분야 산업구조 변화와 학교 직업교육기관(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의 대응방식을 탐구

✔ 주요목차

- 산업구조 변화와 학교 직업교육 변화 추이
- 학교 직업교육의 산업구조 변화 대응방식 탐색
- 정책과제 제안

공공고용서비스와 사회적 파트너



2022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 전용석, 우상범, 조영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공공고용서비스와 사회적 파트너**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고용복지+센터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고용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고용 서비스 선진국들의 최근 동향과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와 방향 모색

✔ 주요목차

- 선진국 경험에 기반한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향
- 고용복지+센터의 성과와 과제
-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및 협업 현황
- 국외 사례관리 사례와 시사점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민간 취업지원서비스 변화와 시사점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과

능력중심 채용 지원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연구



2023년 12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테드솔루션 / 이주현, 고인정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능력중심 채용 지원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연구**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공기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IPPO 모델을 활용하여 19개의 성과지표 도출
- 각 성과지표에 대해 지표 정의, 평가방법, 단계 구분, 배점, 하위지표, 평가항목, 평가척도 등을 서술한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 해당 성과지표의 운영 가능성 판단 및 보완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일부 성과지표 수정 및 운영 상의 시사점 도출
- 향후 산업인력공단이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의 활용방안 및 성과평가 매뉴얼 개발

✔ 주요목차

- 성과지표 도출 및 정의
- 파일럿 테스트
- 성과평가 활용 방안 및 매뉴얼 개발



고용노동부

1.16.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발표

1.22.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1.24.

플러스자격 시범운영 교육·훈련기관 방문

1.31.

'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선정 및 '25년도 시행 종목 신규 지정

1.31.


제3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심의·의결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29.~2.13.

2024년 청년인턴 채용공고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1.29~2.6.

'24년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운영기관 심사

2.7~3.7.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2.19.~2.23.

'24년도 해외취업연수사업 과정·기관 심사

2.5.

'24년 제2차 HRDK 미래지식포럼 개최

2.7.

'24년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1.29.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2.6.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26.

2023 산학협력력 성과교류회

1.30.

2023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

1.30.

‘미래소재기술연구소’ 출범식

2.2.

2024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컨퍼런스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5.

20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심사·평가 계획 공고

1. 15.~2. 15.

2024년 상반기 K-디지털 기초 역량훈련 심사 신청·접수

2. 29.

2024년 운영 국기 프로젝트 훈련 공모 계획 공고

12. 16.

2024년 직업훈련 미래혁신 컨설팅 계획 공고



한국폴리텍대학

2.5.

제26주년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창립 기념일 행사

2.7.

2023학년도 한국폴리텍대학 학위수여(수료)식

2.6.~2.13.

2024학년도 2년제학위과정 합격자 등록

~2.29.

2024학년도 직업훈련과정(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 원서접수

연중


2024학년도 직업훈련과정(신중년특화과정, 여성재취업과정) 모집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무엇인가요?

2015년 처음 도입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내·외부평가를 통과하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겼어요!



교육·훈련과정 입학



NCS 기반 교육·훈련 이수 + 내부·외부평가




자격증 발급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무엇인가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충실한 교육·훈련과정을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훈련기관에서 직무내용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과 내부평가를 거친 후 국가가 시행하는 외부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므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과 통용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검증·배출할 수 있습니다.

검정형 자격제도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희망하는 누구나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 분	검정형 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증
응시 자격	학력, 경력요건 등 응시요건 충족자	해당 과정을 이수한 누구나
평가 방법	지필평가·실무평가	내부평가·외부평가
합격 기준	필기 :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내부평가·외부평가 결과물 1:1 반영 평균 80점 이상
자 격 증	기재내용 : 자격종목, 인직사항	검정형 기재내용 + 교육·훈련기관명, 교육·훈련기간 및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명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나요?

해당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시자격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 초보자도 도전할 수 있고, 상위등급의 자격 취득도 가능합니다.

어떤 점이 좋은가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받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취업률도 높고 취업 후 현장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입니다.

자격취득 희망자

실무 중심 지식 습득, 평생 경력 개발 유리

과정 참여 혜택
· 정부지원 통한 훈련에 지원 가능
· 별도의 응시 요건 없이 참여 가능
· 교육훈련을 받은 장소에서 외부평가(실무평가) 응시 가능

현장 중심 교육·훈련
· 산업현장 중심의 지식, 기술 습득
·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으로 경력 개발 유리

교육·훈련기관

산업현장 연계 교육·훈련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NCS 기반 과정 운영 현실성 지원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기관으로서 발급자격 홍보 가능
교육 훈련성 모범에 유리

기업

맞춤형 인재 채용 가능, 재교육 비용 절감

실무 중심의 자격취득자 채용 용이
재교육 비용 절감 가능
근로자 경력 개발에 기여 가능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 성과가 궁금합니다

2023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취업률 등 노동시장 전반적 측면에서 과정평가형 취득자가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정형 자격취득자 대비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 성과

6개월 내 취업률	취업 소요기간	상용직 취업비율
14.3% ↑ 29.1% (검정형) / 43.4% (과정평가형)	9.64일 ↓ 8268일 (검정형) / 7304일 (과정평가형)	1.8% ↑ 78.8% (검정형) / 80.6% (과정평가형)
검정형 자격취득자	검정형 자격취득자	검정형 자격취득자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

2024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객에게 드리는 다짐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밝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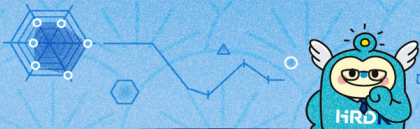
올해 공단은
학력과 자격, 직업훈련 등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평생직업능력개발’이
국민의 ‘상식’이 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나,

환경변화와 개개인성에 대응한
‘적시정책 (A just in time policy)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휴먼에러를 줄이고
직업훈련과 자격, 개인별 경력개발경로를
아우르는 ‘생애 주기 맞춤 일자리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포용(Broadness) 적인
조직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과감하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조직이 구성원의 도전을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셋,

공단을 소통 (Communication) 과
참여의 공간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공단을 고객과 전문가 등이 모여 포럼, 음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場)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에서 이뤄진 모든 서비스 과정과
품질에 대한 고객의 경험을 책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고객 여러분!

2024년 공단이 열어갈
대전환의 시대, 상식의 시대,
함께 만들어 가는 시대를 지켜봐 주십시오.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